

<발 간 사>(안)

우리 민족에게 불교만큼 큰 기여를 한 종교는 없습니다. 1700년의 역사를 보더라도 불교는 국가와 민족의 기본 정신이 되었고, 모든 민중의 삶을 지탱하고 일으켜 세우는 정신적 지주였으며, 문화와 예술의 꽃을 피우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왔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국난극복의 선봉이 되었고, 민중의 삶이 도탄에 빠졌을 때는 부처님의 너른 품으로 자비롭게 보듬어 주었습니다.

세계 속에 우리 민족의 긍지를 높이는 빼어난 국보와 보물의 대부분 역시 불교의 유산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삼천리 방방곡곡 그 법음을 떨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지금은 갈라진 북한 지역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금강산과 묘향산 등의 지역에는 남녘과 견줄만한 대찰과 선사들이 즐비하였으니, 이념에 따라 남북이 나뉘고 북한 지역에서 불교가 쇠락한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벌써 6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북한의 불교와 남한의 불교가 다르고, 북한의 불교문화유산과 남한의 불교문화유산이 다르다는 인식마저 고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듯이 남과 북의 불교는 언제나 둘이 아닌 하나였으며, 그 문화유산 역시 결코 다른 것일 수 없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분단 65년을 지나면서 부처님의 가피로 크나큰 원력 하나를 회향하기에 이르렀으니, 북한 전역에 산재한 우리의 전통 사찰들의 모습을 세밀한 부분까지 사진에 담아 도록으로 펴내게 된 것입니다. 불자들의 기쁨을 넘어 우리 민족 전체를 위한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번에 발간하는 도록에 실린 사진들은 북한의 문화보존소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년여에 걸쳐 북쪽 전역에 남아 있는 59개의 전통사찰과 암자를 촬영한 것을 제3국을 통해 입수한 것입니다. 그동안 남쪽에 소개된 북한 사찰의 모습은 북한에서 출간된 『조선의 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2001), 『조선의 절 안내』(조선문화보존사, 2003)에 실려 있는 것으로 대부분 1990년대에 촬영되었습니다. 일부 북한 방문자들

이 평양의 광범사, 법운암, 묘향산 보현사, 개성 관음사 등을 방문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지만 크게 제한된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도록은 북한의 전통사찰에 대한 ‘최초의 종합보고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전각, 불화, 불상, 단청, 비석 등 사찰의 모든 구조물을 세밀하게 촬영한 도록 출간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자부합니다. 이외에 장안사터, 화장사터, 마하연터, 학림사터, 현화사터, 신평사터 등도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남북으로 분단되어 대결과 불신으로 이어져 온 우리 민족의 고통의 역사를 화합과 평화, 통일의 역사로 만들기 위해 2000년에 창립한 조계종의 산하 기관입니다. 그동안 남북불교의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남북 불교교류 추진, 연구 조사를 통한 종단의 통일 정책 수립, 북한동포돕기를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 남북 공동행사 및 연대 사업 참가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남북이 하나 되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데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올해 주요 사업을 남북불교교류를 통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불교계 통일 활동의 대중적 저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종단의 5대결사, 특히 평화결사에 적극 동참하는 취지와도 부합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전통사찰 도록은 『남북불교 교류 60년사』에 이은 커다란 결실이며, 북한 전통사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 남북 불교교류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부처님의 가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커다란 결실을 이천만 불자와 국민, 그리고 문화예술계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11년 6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이사장 자 승